수십 년 동안 가족기업 Roland Deeg GmbH는 무엇보다 두꺼운 연강을 가공해왔습니다. 15년 전에는 알루미늄 가공 공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996년 설립된 이 기업은 다양한 프리미엄 차량 제조사를 위해 내부 알루미늄 차체 구조 부품을 최대 300개까지 양산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부품 품질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는 매우 높습니다.

Roland Deeg GmbH

www.deeg-bleche.de

시스템 공급업체인 Roland Deeg GmbH는 개수 1개의 간단한 레이저 부품에서 완성된 모듈에 이르기까지 판재 가공 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범위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Schwäbisch Hall에 위치한 이 가족 기업의 고객에는 자동차산업, 기계 및 설비 제조, 풍력발전 및 건설기계 등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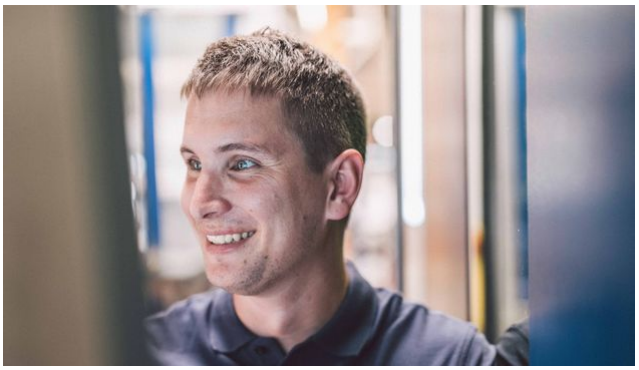
분야
판재 가공

임직원수
150

소재지
Kirchberg/Jagst(독일)

도전과제

자동차산업 분야 고객을 위해 Roland Deeg은 무엇보다 내부 차체 부품을 제조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부품은 매우 작거나 섬세한 경우가 많으며 컨투어 역시 복잡합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이 많은 소형 부품을 반출하는 절차와 기존에 필요했던 마이크로조인트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TruLaser Center 7030을 통해 당사 직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파트 품질과 함께 완제품 분류 기능을 통해 어떠한 오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MATTHIAS DEEG
제조팀 이사

해결책

Deeg에게 있어 TruLaser Center 7030의 등장은 마치 천우신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재 가공 기업의 경영진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자동차산업 제품 그룹을 위해 테스트되는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품은 스크레치나 버 또는 마이크로조인트 없이 생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솔루션인 SmartGate, SmartLift 및 SortMaster Speed를 함께 활용하여 Deeg에서는 매우 높은 공정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러시 테이블을 통해 연결된 SmartGate를 통해 부품이 떨어지는 것이 방지됩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조인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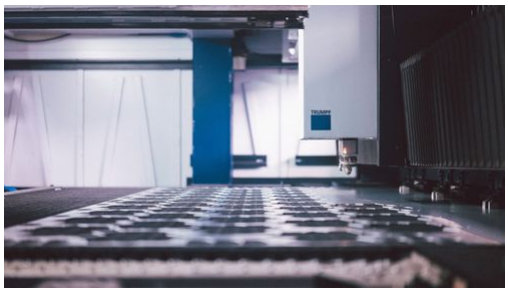
한 부품을 브러시 테이블 덕분에 스크래치 없이 해당 용기에 바로 적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행

TruLaser Center 7030은 Deeg에 따른 모든 품질 요건을 문제 없이 충족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브러시 테이블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이 장치는 TruLaser Center 7030에서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그리드를 대신합니다. 브러시 덕분에 단단한 그리드와 비교하여 보다 부드럽게 부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두께가 얇은 Deeg의 알루미늄 판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계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특히 양산 부품의 경우 이러한 요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Deeg의 임직원은 아침에 출근 후 제조 계획을 승인하고 2~3일 후 높은 품질로 제조된 부품을 꺼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TruLaser Center 7030은 이에 따라 완성품을 잔재 그리드로부터 스크래치 없이 자동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을 직접 두드려 분리하는 수작업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가 작업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전망

Deeg에게 있어 TRUMPF는 레이저 기계 공급사 그 이상입니다. 파트너로서 두 기업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레이저 가공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은 새로운 기계 세대의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Matthias Deeg는 결론을 내립니다.